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윤리적 대화

- 얼굴과 선물 개념을 중심으로

이현균 (충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대학원생)
성신형 (충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

- | | |
|---------------|-----------|
| 1. 전체성에 대한 비판 | 2. 타인의 얼굴 |
| 3. 책임의 우선성 | 4. 환대와 윤리 |

III.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

1. 고대 선물 문화와 은혜
2. 비상응적 선물
3. 비상응적 선물과 공동체 형성

IV. 타자의 우선성과 선물의 우선성: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대화

- | | |
|-------------------|--------------|
| 1. 먼저 주어지는 것의 우선성 | 2. 가치 체계의 해체 |
| 3. 책임에서 공동체로 | |

V. 환대와 은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1.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차이와 상호 보완
2. 환대받은 자의 공동체

VI. 나가는 말

• ABSTRACT •

An Ethical Dialogue of Levinas and Barclay:
Face and Gift as the Grounds of Responsibility and Hospitality

Graduate Student, Lee, Hwonkyun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 Seong, Shinyung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for structural resonance between Emmanuel Levinas' ethics of the Other and John M.G. Barclay's understanding of grace. Levinas critiques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of totality, arguing that the face of the Other summons the self to responsibility prior to freedom and cognition, thereby establishing the priority of ethics over ontology. For Levinas, responsibility is asymmetrical, arising not from reciprocity or merit but from the very epiphany of the face. Barclay, in turn, reexamines Paul's concept of grace ($\chi \acute{\alpha} \rho \iota \varsigma$) against the backdrop of ancient Mediterranean gift culture, demonstrating that the divine gift in Christ is an "incongruous gift" given without regard to the worth or merit of the recipient. This incongruous grace extends beyond individual salvation to become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a new community that dismantles hierarchies of lineage, status, and gend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iority of the Other in Levinas and the priority of the gift in Barclay converge in pointing toward a relational horizon that transcends anthropocentric value systems. Building on this dialogue, the paper explores the Christian social ethical possibility of restoring the Christian community — amid the fragmentation of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society — as a community of hospitality grounded not in worthiness but in grace.

Key words: Levinas, the Face of the Other, Responsibility, Barclay,
Incongruous Gift(Grace), Hospitality, Christian Community,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해야 하는가? 낯선 사람의 아픔이 왜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은 왜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간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언제든지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실시간으로 접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는 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만 관계를 맺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이 일상화되었다. 혐오와 갈등의 언어는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고, 정치적·세대적·문화적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타인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사랑과 공동체를 이야기해 왔지만, 현실 속 교회 역시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입장의 차이, 신앙의 형태를 둘러싼 대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은 신앙마저 개인의 만족과 경험 중심으로 이해하게 했으며, 교회는 점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기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축소되고 있다.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해체는 더 이상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신학적 과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소중한 가치이며, 누구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왜 내가 타인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가? 타인의 고통이 왜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왜 타자를 위해 책임져야 하느냐는 윤리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과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지만, 왜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인간에게 낯선 타자의 요청에 응답하도록 만드는가?

이러한 윤리적·신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두 사상가의 사유를 교차시키고자 한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을 타인의 얼굴 앞에서 경험되는 책임 속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윤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타자의 우선성’으로 규정된다. 반면 존 M.G. 바클레이는 바울의 은혜 이해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자격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상응적 선물’을 강조하며 선물의 우선성을 논한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우리가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한다. 반면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타자를 향한 책임과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신학적 기반과 공동체적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요청과 바클레이가 밝힌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책임과 환대의 윤리를 형성하는지 그 구조적 공명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오늘날 관계의 파편화를 경험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

1. 전체성에 대한 비판

‘우리는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비나스가 비판하는 서구 철학의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서구 철학은 오랫동안 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을 중심 과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이러한 서구 철학을 동일자의 우위를 전제하는 철학으로 규정하며 비판한다.¹⁾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로서 자신 앞에 놓인 대상을 이해하고 분류하며 통합하고자 하지만, 이는 결국 있는 그대로의 타자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것이라는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시도는 인간에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타자를 하나의 개념이나 범주 안으로 환원하는 위험을 낳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체성’이라고 부른다. 전체성이란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포섭하려는 사유의 경향을 의미한다. 전체성의 논리 안에서 “주체화와 개념화는 타자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억압하거나 소유하는 것”³⁾으로 전락한다. 타자의 낮섬과 고유성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이해한 대상이 될 뿐이다. 이 때문에 레비나스는 전체성을 지향하는 존재론을 “힘의 철학”이라 명명하며, “힘의 철학, 즉 동일자를 문제시하지 않는 제1 철학으로서의 존재론은 불의의 철학”⁴⁾이라고 단언한다.

1)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 2018), 43-44.

2) 위의 책, 48.

3) 위의 책, 48.

4) 마리 안느 레스퀴레, 변광배 · 김모세 옮김, 『레비나스 평전』 (서울: 살림, 2006), 528.

이러한 전체성의 문제를 비판하게 된 배경에는 20세기의 비극적인 역사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쟁 포로 생활을 겪으며, 특히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통해 인간을 하나의 민족, 국가, 이념 속에 포함시키려는 사유가 얼마나 쉽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였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만을 요구하는 존재론은 결국 타자를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레비나스는 이러한 존재론을 ‘힘의 철학’이라 비판한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존재론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존재론이 윤리보다 앞서서 사유의 구조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존재를 우선하는 사유는 타자를 동일자의 체계 안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전체주의적 폭력의 가능성을 낳기 때문이다.⁵⁾

전체성은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동일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동일성은 결국 타자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를 배제한다. 레비나스에게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전체성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였다.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경험은 레비나스로 하여금 서구 철학이 전제해 온 존재론 자체를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문명이 오히려 대규모 폭력과 학살을 막지 못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반성이 아니라 철학의 출발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과연 존재를 이해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과제인가? 타인을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존재론적 사유는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레비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 철학의 전통이 간과해 온 타자의 문제를 발견한다. 그에게 타자는 내가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5)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85.

아니다. 오히려 타자는 언제나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이며, 나의 동일성 안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으며,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한다.⁶⁾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관계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존재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초월의 운동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자가 타자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외재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자와 타자는 전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며, 타자는 언제나 동일자의 이해를 넘어서는 절대적 분리 속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⁷⁾ 바로 이러한 외재성과 초월성 때문에 타자는 전체성의 체계 안으로 결코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레비나스는 존재를 이해하는 철학보다 타자와의 관계를 우선하는 새로운 사유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이후 그가 전개하는 얼굴의 철학과 타자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⁸⁾ 그렇다면 인간은 타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레비나스는 이에 대한 답을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⁹⁾

2. 타인의 얼굴

일반적으로 얼굴은 인간의 외모나 신체적 형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와 감정, 성격을 추측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이러한 일상적 의미의 얼굴과는 다르다. 그에게 얼굴은 눈, 코, 입과 같은 신체적 특징들의 총합이나 시각적 대상이 아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얼굴은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6)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6.

7) 위의 책, 30-31.

8) 위의 책, 43.

9) 위의 책, 58.

가운데 현전”이며 나의 표상이나 지식으로 감쌀 수 없는 철저한 외재성 그 자체를 지낸다.¹⁰⁾ 얼굴은 타자가 자신의 고유성과 외재성을 드러내며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얼굴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타자의 현현이다.¹¹⁾

레비나스는 얼굴이 언제나 나의 이해를 초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며 그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를 설명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내가 이해한 타자일 뿐, 타자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타자는 어떠한 개념이나 범주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얼굴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며 타자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렇게 “타인은 무한히 초월적인 자로, 무한히 낮은 자로 남는다. 타인의 얼굴에서 타인의 예피파니가 생산되고, 그런 가운데 타인의 얼굴은 내게 호소한다.”¹²⁾

주목할 점은 이 초월적인 타인의 얼굴이 다가오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은 어떤 보호막이나 가식도 없는 철저한 벌거벗음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벌거벗은 얼굴은 계속 손짓하고 몸부림 치면서 나의 응답을 기다린다.”¹³⁾ 이때 얼굴은 힘과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초월성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타인은 또한 낮은 이, 고아 그리고 과부다. 나는 그들에게 의무가 있다.”¹⁴⁾ 즉, 타자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얼굴은 단순히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건네며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부름이다.

10) 위의 책, 285.

11) 위의 책, 287-288.

12) 위의 책, 286.

13) 이상철, “레비나스의 신 담론과 이타성의 윤리학,” 『신학사상』 207(2024), 185.

14)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20.

따라서 얼굴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얼굴은 나에게 말을 건다. 물론 이것은 실제 언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얼굴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며, 내가 타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만든다. 물리적인 저항 수단이 전혀 없는 무력한 얼굴은 역설적으로 나를 향해 주인의 권위를 띠고 다가온다. 상처받기 쉬운 약자의 얼굴은 나의 이기적인 자발성에 제동을 걸며 “너는 살해할 수 없을 것이다”는 최초의 말을 건넨다.¹⁵⁾ 얼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지배하는 주체로만 머물 수 없다. 힘없는 얼굴의 호소는 역설적으로 나의 폭력성을 제지하며 타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얼굴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무한의 흔적이며, 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전체성이 모든 존재를 하나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려는 사유라면 무한은 그러한 체계 안으로 결코 포섭될 수 없는 타자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레비나스는 절대적인 이타성으로 다가오는 “인간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의 흔적을 보게 된다”고 역설한다.¹⁶⁾ 타인의 얼굴은 무한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동일자의 닫힌 세계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균열이다. 결국 얼굴과의 만남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얼굴은 내가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전까지 타자는 나의 이해와 판단의 대상이었다면, 얼굴 앞에서 타자는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타자가 된다. 얼굴은 내가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동일성을 흔들고 타자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현현이다. 따라서 레비나스에게 얼굴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타자의 윤리적 관계가 시작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다.

15) 위의 책, 294.

16)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현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선교와 신학』 67(2025), 92.

3. 책임의 우선성

얼굴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얼굴은 나에게 응답을 요구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인의 얼굴은 중립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해 말을 거는 존재이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이를 “동일자의 자기 중심적 자발성 안에서 행해질 수 없는 동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우리는 타인의 현전이 나의 자발성을 문제 삼는 것을 윤리라고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¹⁷⁾ 즉, 얼굴과의 만남은 내가 타자를 지식으로 포섭하려 노력했던 전체성의 폭력을 멈추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허물며 타자의 부름에 먼저 응답하게 만드는 윤리적 사건이다.

이처럼 얼굴은 단순히 타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윤리적 요청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레비나스에게 중요한 것은 타자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의 요청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론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윤리를 앞세운다. 이 지점에서 레비나스는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인간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서구의 존재론적 전통에서는 인간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주체로 상정하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한 이후에 윤리적 행동(책임)이 뒤 따른다고 이해했다. 즉, 자유가 먼저이고 책임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인간이 먼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타자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임을 역설한다. “존재론의 평면에 앞서 윤리의 평면이 미리 존재한다”¹⁸⁾는 그의 선언은, 내가 타자를 온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발현되기도 전에 이미

17)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43.

18) 위의 책, 297.

타자의 무한한 얼굴 앞에서 책임을 지도록 지목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은 나의 선택이나 계약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 현현하는 순간 이미 책임은 시작된다. 얼굴은 나의 자유보다 먼저 나에게 다가오며, 나를 책임의 자리로 불러낸다. 그렇기에 책임은 내가 나중에 선택하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이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먼저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한 뒤 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자의 요청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이해한다.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응답하는 존재이며, 바로 이 응답 속에서 윤리적 주체로 서게 된다.¹⁹⁾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상호적 관계나 호혜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 주었을 때 책임을 느끼거나, 도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비나스에게 책임은 교환이나 계약의 논리가 아니다. 타자는 나에게 아무런 선행을 베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책임의 대상이 된다. 나는 타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 전에 이미 그에게 응답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²⁰⁾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레비나스는 내가 타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유를 타자의 책임이나 공로에서 찾지 않는다. 책임은 상대방의 자격이나 가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따라서 나는 타자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타자가

19)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192-194.

20)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93-94.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를 향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책임은 권리보다 앞서며, 나의 자유와 선택보다 먼저 주어진다.²¹⁾

결국 레비나스에게 타인의 얼굴이 초월성(무한)을 드러낸다면, 책임은 그 무한이 동일자의 닫힌 세계를 깨뜨리며 남기는 가장 근원적인 흔적이다. 인간이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레비나스는 책임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내면의 윤리적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시작된 책임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자리를 내어주는 실천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윤리는 책임의 우선성에서 멈추지 않고,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고 내어주는 환대의 윤리로 나아간다.

4. 환대와 윤리

레비나스에게 책임은 단순한 내면의 도덕적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시작된 책임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단순히 타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그의 삶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²²⁾ 얼굴이 나의 의무를 요구하고 나를 심판하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책임의 실천적 형태가 바로 환대이다. 환대는 레비나스 윤리의 실천적 귀결이며, 얼굴과 책임의 논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환대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

21)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신학과 실천』 78(2022), 168.

22)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90-91.

23)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20.

위이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말하는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나 관용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를 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며, 나의 삶을 타자에게 개방하는 존재론적·윤리적 태도이다. 따라서 환대는 선택적으로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 요청하는 책임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성의 논리가 타자를 동일자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려 했다면, 환대는 타자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제한함은 전체성 속에서만 생산되는 반면, 타인과 맺는 관계는 전체성의 천장을 부순다. 타인과 맺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평화적이다.”²⁴⁾ 이렇듯 환대는 기존의 서구 철학이 가져왔던 타자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거나 나의 기준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대는 타자가 끝까지 타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타자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주체성이 타자에 대한 개방성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인간은 스스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맞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윤리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에서 확장되어 타자를 위한 장소가 된다. “타인을 자신이 소유한 열린 집으로의 거둬들임(환대)”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공간임을 확인하게 한다.²⁵⁾ 환대는 자신의 공간을 타자에게 내어주는 행위이며, 자기중심적인 동일성의 세계를 넘어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사건이다.²⁶⁾ 특히 환대는 타자의 자격을 묻지 않는다. 타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혹은 환대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환대는 타자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응답이다. 이러한 점에서

24) 위의 책, 254.

25) 위의 책, 256.

26)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174-175.

환대는 책임의 비대칭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타자의 공로나 가치 때문에 그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인의 얼굴 앞에서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다.²⁷⁾

이러한 환대의 윤리는 성서가 강조하는 나그네 사랑과도 깊은 공명을 이룬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받는다. 신약에서도 예수는 가장 작은 자를 맞아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한다. 물론 레비나스의 철학은 성서 해석으로부터 직접 출발하지 않지만, 타인의 얼굴 앞에서 시작되는 책임과 환대의 윤리는 성서가 말하는 이웃 사랑과 깊은 접점을 형성한다.²⁸⁾ 레비나스에게 환대는 단순한 사회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얼굴이 요청한 책임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이며, 전체성의 폭력을 넘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윤리적 태도이다. 얼굴은 책임을 낳고, 책임은 환대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환대는 레비나스 윤리의 실천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전체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얼굴의 현현, 책임의 우선성, 그리고 환대의 실천으로 전개된다. 타자는 더 이상 이해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요청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윤리적 주체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타자를 향한 무한한 책임과 환대는 과연 무엇에 의해 지속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자격 없는 타자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 앞에서 시작되는 책임의 구조를 탁월하게 설명하지만, 그러한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

27) 위의 글, 164-165.

28)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96-97.

게 논의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바클레이가 말하는 은혜와 선물의 논의로 시선을 옮기게 한다. 바클레이는 인간의 자격과 가치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상응적 은혜를 통해, 타자를 향한 환대가 어떠한 공동체적 토대 위에서 가능해지는지를 새롭게 조명한다.²⁹⁾

III.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

1. 고대 선물 문화와 은혜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을 책임에서 발견하였다면, 존 바클레이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chi\acute{\alpha}\rho\iota\varsigma$)를 통해 인간과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선물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바클레이의 관심은 단순히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고대 세계의 선물 이해 속에서 어떠한 독특성을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클레이는 먼저 현대인이 이해하는 선물 개념과 고대 지중해 세계의 선물 개념 사이의 차이를 지적한다. 오늘날 선물은 대체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로 이해된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단순한 증여 행위가 아니었다. 바클레이는 “순수 선물이라는 현대적 개념”은 고대의 일반적 개념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고대 사회에서 “선물이 대출 또는 시장 거래와 구별되었던 점은 선물에는 그에 대한 답례가 요구되거나 강요될 수 없었다는 것”일 뿐, “선물이 교환 혹은 답례의 모든 개념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³⁰⁾ 즉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였으며, 선물을 받은

29) 존 M.G. 바클레이, 송일 옮김,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27-131.

30) 위의 책, 138.

사람은 감사와 응답을 통해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대의 선물은 완전히 무상적인 행위라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관계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선물의 구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위계와 권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선물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무상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바클레이는 이러한 고대 선물 문화를 배경으로 바울의 은혜 개념을 재조명한다. 그는 바울의 은혜 이해가 고대 선물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의 언어로 설명하며, 은혜가 받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기존의 선물 체계가 전제하던 가치 판단과 사회적 위계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따라서 바울의 은혜 이해는 고대 선물 문화와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클레이는 은혜 개념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설명하기 위해, 은혜를 “극대화하려는 경향과 그런 경향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해석 틀을 제시한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극대화라는 용어는 케네스 버크의 연구저서에서 빌려온 것으로, 이 용어는 명확한 정의 혹은 수사적 또는 관념적 이점을 얻기 위해 어떤 개념을 그 말단이나 극단까지 끌고 가는 경향을 가리킨다.”³¹⁾ 이러한 분석 틀을 통해 그는 은혜가 초충만성(superabundance), 단일성(singularity), 우선성(priority), 비상응성(incongruity), 유효성(efficacy), 비순환성(non-circularity)과 같은 여섯 가지 방식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³²⁾ 바클레이의 중요한 통찰은 특정 전통이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31) 위의 책, 126-127.

32) 위의 책, 130-140.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혜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서로 다른 극대화의 결과로 드러난다.

이러한 논의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바클레이는 바울 신학에서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대화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바울의 은혜 이해가 당시의 가치 체계와 공동체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 바클레이가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상응적 선물”이다. 비상응성이란 하나님의 선물이 수혜자의 가치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건함이나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롬 5:8). 바클레이의 표현대로, 비상응성이란 “수혜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질 경우”를 뜻하며, “조건 없이, 다시 말해 받는 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어지는 선물이 완벽한 선물로 간주”되는 극대화 형태다.³³⁾ 따라서 은혜는 인간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보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 바클레이에게 은혜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사건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바클레이는 “이 그리스도-선물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 체계 그 핵심에 있는 규범적 형식을 무시하고 따라서 이 규범적 형식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³⁴⁾ 이러한 “비상응적 선물은 다른 단계를 거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공동체는 전략적으로 기존의 가치 평가 — 민족적 · 사회적 · 성별적 또는 그 외에 다른

33) 위의 책, 135-136.

34) 위의 책, 742.

평가 — 에 무관심하므로 공동체 자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실천한다.³⁵⁾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종교적 호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주어진 비상응적 선물이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바클레이가 강조하는 비상응적 선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울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상응적 선물

바클레이가 제시한 은혜의 여섯 가지 극대화 방식 가운데 바울 신학을 가장 선명하게 관통하는 특징은 ‘비상응성’이다. 비상응성이란 선물이 수혜자의 가치나 자격에 상응하지 않고 주어진다는 의미다.³⁶⁾ 바클레이는 이를 “조건 없이, 다시 말해 받는 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어지는 선물”로 정의한다.³⁷⁾ 김규섭 역시 바클레이의 개념을 빌려 비상응성을 “선물이 합당하고 적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요약한다.³⁸⁾ 이는 “수혜자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일수록 수여되는 은혜는 더욱 가치를 지니는 발상이다.”³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유가 수혜자의 종교적 공로나 능력, 사회적 위치 등 어떠한 사전적 조건에도 근거하지

35) 위의 책, 735.

36) 위의 책, 136.

37) 위의 책, 135-136.

38) 김규섭, “바울과 ‘소여성’(所與性): 존 바클레이와 존 칼빈의 저작에 나타난 은혜의 개념,” 『개혁논총』 66(2023), 336.

39) 서대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혜: 존 M.G. 바클레이 ‘은혜의 극대화’와 고린도전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22), 7. 학술논문에서 석사학위 논문 인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바클레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고, 본 학위 논문의 지도교수가 국내 신약학계의 권위자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을 참고하였다.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격 없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바클레이는 로마서 4장과 5장을 분석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으로 묘사함으로써 은혜의 비상응성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한다.⁴⁰⁾ 특히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설명하며 인간 편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ἀσθενής)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ἀσεβής)를 위하여 죽으셨다(5:6). 우리가 아직 죄인(ἁμαρτωλοί)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5: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συνίστησιν, 참조, 3:5). 우리가 원수(ἐχθροί)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5:10)고 묘사한다.”⁴¹⁾ 바클레이는 이러한 일련의 표현들이 수혜자의 가치와 자격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응적으로 주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특히 로마서 5장은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비상응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인간은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로 묘사되지만,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은혜 이해는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의 일반적인 선물 교환 방식을 급진적으로 전복시킨다.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대체로 수혜자의 사회적 명예나 보답 능력과 철저히 연결되어 기존의 사회적 위계와 관계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한 가치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한다. 바클레이는 “그리스

40)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801.

41) 위의 책, 796-797.

도-선물은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비상응적인 은혜이므로, 그것이 주어지는 정황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반영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⁴²⁾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는 기존의 가치 판단을 상대화하며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창조한다. 바클레이는 “이 그리스도-선물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 체계 그 핵심에 있는 규범적 형식을 무시하고 따라서 이 규범적 형식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⁴³⁾

그러나 바클레이는 비상응성을 무조건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는 “바울은 선물의 비상응성(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극대화하지만 선물의 비순환성(답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극대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제약적인 것(어떤 사전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것(후속적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⁴⁴⁾ 즉, 하나님의 은혜는 수혜자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이 아무런 결과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혜는 수혜자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은혜는 비상응성뿐 아니라 유효성의 특징 또한 함께 지닌다.⁴⁵⁾ 국내 학자들 역시 바클레이의 이러한 의도를 지적하며, 바울의 은혜가 어떤 사전 조건(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상응적 선물이지만 후속적 요구가 없는 비순환적 선물은 아님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⁴⁶⁾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수혜자의 가치나 자격을 묻

42) 위의 책, 711.

43) 위의 책, 743.

44) 위의 책, 833-834.

45) 바클레이에 따르면 유효성(efficacy)은 은혜가 단순히 주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혜자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과 선물』 136-138.

46) 김형태, “『바울과 선물』 서평: 바클레이는 어떻게 샌더스를 넘어섰는가?,” 『신약연구』 18(2020), 263; 서대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혜: 존 M.G. 바클레이 ‘은혜의 극대화’

지 않고 주어지지만, 결코 아무런 결과나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이 비상응적 은혜는 수혜자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여 그를 새롭게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유효성을 동반한다.

결국 바클레이에게 비상응적 선물이란 철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주어져 기존의 사회적·종교적 위계를 해체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와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먼저 선물을 베푸신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응적 은혜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혜자의 가치와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원리가 된다. 혈통과 신분,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은혜의 수혜자로 서게 된다.⁴⁷⁾

3. 비상응적 선물과 공동체 형성

비상응적 선물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의 비상응성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신학적 원리로 작동한다.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어진다면, 그 선물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역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를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클레이는 “이 비상응적 선물은 다른 단계를 거치는 공동체(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시킨다”고 말한다.⁴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은 단순히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구조와

와 고린도전서,」『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2022), 53. 두 연구는 모두 바클레이가 바울의 은혜를 수혜자의 가치와 무관한 비상응적 선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후속적 요구가 없는 비순환적 선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47)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91.

48) 위의 책, 735.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만든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선물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더 이상 혈통이나 신분, 명예와 같은 기존의 가치 기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바클레이의 표현대로, 이 공동체는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구성된 새로운 의견 공동체”이며, 세상의 인정 투쟁을 거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징적 질서를 형성한다.⁴⁹⁾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공동체는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공동체 이해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고대 지중해 사회는 민족적 정체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성별과 같은 기준을 통해 사람을 구분하고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바클레이는 “그리스도 선물은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비상응적인 은혜이므로, 그것이 주어지는 정황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반영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⁵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승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형태의 지적처럼,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별을 넘어 인간이 서로를 평가하는 문화적 잣대와 “객관적 가치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혁명적 사건이 된다.⁵¹⁾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낸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자격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비상응적 선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거부한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가치나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진다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특권 역시 공동체 참여의 조건이 될

49) 위의 책, 729.

50) 위의 책, 711.

51) 김형태, “『바울과 선물』 서평: 바클레이는 어떻게 샌더스를 넘어섰는가?,” 260-261.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고 선언한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사회적 차이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차이가 공동체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비상응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선물은 모든 기존의 가치 체계들을 무너뜨렸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은 오직 동일하게 하나님의 파격적 선물을 받은 수혜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⁵²⁾

바클레이는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을 단순한 포용 정책이나 사회적 평등 운동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비상응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는 기존의 문화적 가치 체계나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규범적 형식을 무시하고 그 형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바울의 공동체는 인간의 가치 체계를 수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이다.

결국 바클레이에게 공동체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실재이다. 혈통과 신분, 성별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선물의 수혜자로 서게 된다. 서대인이 지적하듯, 개인에게 작용한 은혜의 유효성은 필연적으로 신자들 사이의 상호적 돌봄과 나눔이라는 공동체적 ‘공유성(κοινωνία)’으로 확장된다.⁵³⁾ 따라서 비상응적 선물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 능력이 되며, 바울의 공동체는 인간의 자격

52) 같은 글, 261.

53) 서대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혜: 존 M.G. 바클레이 ‘은혜의 극대화’와 고린도전서,” 53-55.

과 공로가 아니라 선물의 우선성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 질서를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인간의 가치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선물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우선성과 흥미로운 공명 가능성을 제시한다.

IV. 타자의 우선성과 선물의 우선성: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대화

1. 먼저 주어지는 것의 우선성

레비나스와 바클레이는 서로 전혀 다른 학문적 배경에 서 있다. 레비나스는 철학자로서 인간 존재의 윤리적 구조를 탐구하였고, 바클레이는 신약학자로서 바울의 은혜 이해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사유는 인간보다 먼저 주어지는 어떤 우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명점을 보여준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윤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합리적 판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는 전통 철학이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타인의 얼굴이 나를 부르는 사건이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타자의 부름은 자아의 의지와 주도성에 선행한다.”⁵⁴⁾ 타인의 얼굴 앞에서 인간은 먼저 책임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책임은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보다 앞서 주어지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윤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이미 책임 있는 존재로 호출된다고 설명한다.

바클레이 역시 인간의 가치나 자격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그가

54)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90.

바울의 은혜 이해를 분석하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공로나 능력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울에게 은혜는 인간의 자격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가치와 공로에 선행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진다.⁵⁵⁾ 바클레이가 비상응성을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 수혜자의 자격에 상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먼저 주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의 책임과 바클레이의 선물은 모두 인간 주체의 자기 충족성을 해체한다. 레비나스에게 인간은 타자보다 먼저 존재하는 자율적 주체가 아니며, 바클레이에게 인간은 자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양자는 모두 인간보다 먼저 오는 어떤 사건을 강조한다. 레비나스에게 그것은 타인의 얼굴이며, 바클레이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비상응적 선물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도 존재한다. 레비나스가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의 우선성을 말한다면,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가치에 선행한다는 신학적 우선성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자격, 공로보다 앞서 주어지는 어떤 우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명한다. 결국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모두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타자 혹은 선물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이해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선성의 구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자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따라서 양자의 사유는 모두 인간 중심적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55)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134.

2. 가치 체계의 해체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사유가 만나는 핵심 지점은 인간보다 먼저 주어지는 어떤 우선성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성은 인간 존재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인간이 구축해 온 가치 체계와 자기 이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인의 얼굴은 동일자의 자기 충족적 세계를 깨뜨리고, 바클레이에게 비상응적 선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격과 공로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레비나스는 서구 철학의 전통이 존재를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하고, 타자를 동일자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가 비판하는 “전체성”이란 바로 이러한 동일화의 체계이다. 전체성 안에서 타자는 나의 이해와 판단의 대상이 되며, 결국 나의 세계 안에 흡수된다.⁵⁶⁾ 그러나 타인의 얼굴은 이러한 동일화의 시도를 거부한다. 얼굴은 언제나 나의 이해를 초과하며, 내가 설정한 범주와 가치 판단을 넘어선다. 따라서 얼굴과의 만남은 내가 타자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에 의해 책임으로 호출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바클레이 역시 인간이 형성한 가치 체계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선물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고대 사회의 선물은 대체로 수혜자의 가치와 명예를 전제하였다. 선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위계와 차별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한 가치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선물은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비상응적인 은혜이므로, 그것이 주어지는 정황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반영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⁵⁷⁾

56)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48.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와 바클레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 중심적 가치 질서를 해체한다. 레비나스가 타자를 나의 범주 안에 가두려는 동일성의 논리를 비판한다면, 바클레이는 인간을 가치와 자격에 따라 구분하는 사회적·종교적 질서를 비판한다. 레비나스에게 문제는 타자를 동일자 안에 흡수하려는 존재론적 폭력이며, 바클레이에게 문제는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위계를 구성하는 사회적·종교적 질서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인간이 구축한 가치 체계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⁵⁸⁾ 레비나스에게 동일성의 체계는 타자를 나의 이해 속으로 환원함으로써 폭력을 발생시키고, 바클레이에게 가치와 자격의 체계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은혜의 급진성을 약화시킨다. 레비나스의 ‘얼굴’이 표상과 인식의 범주에 포착되지 않고 이를 초월하듯, 바클레이의 ‘은혜’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객관적 가치 체계와 평가 잣대 자체를 무력화하고 해체한다. 따라서 두 사상가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인간이 만든 질서가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명을 이룬다.

특히 바클레이는 비상응적 선물이 “기존의 문화적 가치 체계 그 핵심에 있는 규범적 형식을 무시하고 따라서 이 규범적 형식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⁵⁹⁾ 이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전체성의 비판과도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을 통해 동일자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면, 바클레이는 비상응적 선물을 통해 자격과 공로에 기반한 가치 체계를 해체한다. 결국 양자의 사유는 모두 인간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겨 온 질서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자와 선물 앞에서 끊임없이 재검

57)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11.

58) 김형태, “『바울과 선물』서평: 바클레이는 어떻게 샌더스를 넘어섰는가?,” 260-261; 박연규,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퍼스 기호학적 이해,” 『기호학 연구』 50(2017), 116.

59)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42.

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모두 인간 중심적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자는 더 이상 나의 판단과 범주 안에 포섭되는 존재가 아니며, 공동체 역시 특정한 자격과 공로를 통해 구성되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얼굴과 비상응적 선물은 인간이 만든 배제의 논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 준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양자의 사유는 책임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3. 책임에서 공동체로

레비나스에게 윤리는 언제나 타인의 얼굴 앞에서 시작된다. 타자는 나에게 책임을 요청하며, 나는 그 요청에 앞서 이미 책임 있는 존재로 호출된다.⁶⁰⁾ 따라서 인간은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성격을 지닌다.⁶¹⁾ 인간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주체가 된다.⁶²⁾ 그러나 레비나스의 관심은 주로 타자와 마주한 ‘주체의 책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바클레이는 바울의 은혜 이해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공동체적 형태’를 형성하는지에 더욱 주목한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비상응적 선물은 단순히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 능력이다. 그는 비상응적 선물이 기존의 가치 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⁶³⁾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60)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90.

61)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12.

62)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169-170.

63)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35.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 바클레이의 지적처럼, “그리스도-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 생명은 율법과 율법의 규범적 실천 관습(“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2:14)에, 특히 공동체의 질과 한계를 규정하는 공동 식사에 의존한다(2:11-17).”⁶⁴⁾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안디옥 논쟁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공동체의 문제였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결정적인 ‘공동 식사’의 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율법의 지배는 정지된다. 비상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선물의 수혜자로 묶어 내며, 지중해 세계의 세속적 경쟁 문화를 대치하는 “혁신적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고 선언한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모든 차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차이들이 더 이상 공동체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근거는 혈통이나 신분, 공로가 아니라 오직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의 공동체 이해는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와의 관계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 앞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우선성을 보여주었다면, 바클레이는 비상응적 선물을 통해 그러한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를 보여준다. 공동체는 더 이상 혈통이나 신분, 공로에 의해 형성되지 않

64) 위의 책, 711.

65) 위의 책, 741.

는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선물에 의해 형성되며, 모든 구성원은 동일하게 은혜의 수혜자로 서게 된다. 결국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모두 인간을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타인의 얼굴과 비상응적 선물은 환대와 공동체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V. 환대와 은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1.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차이와 상호 보완

레비나스와 바클레이는 모두 인간보다 먼저 주어지는 우선성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를 비판한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출발점과 관심 영역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레비나스의 관심은 철저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타인의 얼굴 앞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우선성에 있다.⁶⁶⁾ 그는 타자를 향한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를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 반면 바클레이의 관심은 비상응적 선물이 형성하는 공동체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물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리가 된다고 설명한다.⁶⁷⁾ 레비나스에게 우선적인 것은 ‘타인의 얼굴’이며, 바클레이에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레비나스가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강조한다면, 바클레이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두 사상은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보여

66)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17.

67)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35.

준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왜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타자의 자격을 묻지 않고 책임져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반면 바클레이는 이러한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레비나스가 책임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바클레이는 은혜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상의 상호 보완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레비나스의 윤리는 타자를 향한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 책임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반면 바클레이가 설명하는 비상응적 선물은 인간이 먼저 받은 은혜의 경험을 통해 타자를 향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 바클레이의 지적처럼, 비상응적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선물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혜자 안에서 “새로운 창조 에너지 곧 “사랑”으로 불리는 사회적 헌신의 특성을 분출”시킨다.⁶⁸⁾

나아가 이러한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신자들 사이의 “함께 나눔(*κοινωνε(τω)*)”과 “짐을 서로 지는” 상호 도움의 관계는 자기 발생적인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의존한 사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다.⁶⁹⁾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삶의 원천이자 힘”으로 삼아 타자를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⁷⁰⁾ 이러한 점에서 바클레이가 강조하는 은혜의 유효성은 레비나스가 제시한 타자 책임의 윤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공명은 단순한

68) 위의 책, 711.

69) 위의 책, 734.

70) 위의 책, 738-739.

개념적 유사성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두 사상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지만, 타자를 향한 개방성과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의 해체라는 공통된 지점에서 만나며, 환대와 공동체라는 보다 풍성한 기독교적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환대받은 자의 공동체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한다.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공간과 질서를 타자를 위해 열어 두는 행위이며, 타자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따라서 환대는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타자의 낯섹을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 역시 이러한 환대의 실천에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비상응적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사람들의 자격과 공로를 기준으로 구성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받아들이셨다면, 교회 역시 자격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환대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받은 은혜의 성격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대와 은혜는 서로를 보완한다. 레비나스가 공동체가 타자의 낯섹 앞에서 자신을 개방해야 함을 보여준다면, 바클레이는 그러한 개방성이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타인의 얼굴은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문을 열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비상응적 선물은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환대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 된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신앙의 수준, 사회적 배경, 문화적 익숙함 등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공명은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점검하도록 요청한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들이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환대의 논리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환대와 은혜의 공명은 교회를 자격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로 이해하게 만든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의 얼굴 앞에서의 책임과 바클레이가 설명한 비상응적 선물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로 부른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은혜를 소유한 집단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타자에게 흘려보내는 환대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 사회적 · 정치적 기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신앙의 수준, 교회 문화에 대한 익숙함, 세대와 계층, 사회적 배경 등은 때때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레비나스와 바클레이의 사유는 교회를 향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교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가?”가 아님을 일깨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타자가 나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타인의 얼굴은 나의 판단과 평가 이전에 나타나며, 나를 책임의 자리로 부른다. 따라서 교회는 타자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선별하는 공간이 아니라, 먼저 타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 역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비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비상응적 선물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구성원들의 경건함이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나 선교 전략이 아니다. 환대는 교회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신학적 실천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자를 받아들이셨기에, 교회 역시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도록 부름받는다. 환대는 공동체의 부가적인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다.

결국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성찰하도록 요청한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안정감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바로 이러한 환대의 실천 속에서 비상응적 선물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며, 타자를 향한 책임은 공동체적 삶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인간은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있으며 서로를 이해관계와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자를 향한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윤리적 과제가 된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윤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부름

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타인의 얼굴 앞에서 이미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바로 이 책임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을 드러낸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윤리는 타자를 향한 책임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책임을 지속하게 하는 구체적 동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비상응적 선물이며, 이러한 선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를 해체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 능력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비상응적 선물은 수혜자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며 타자를 향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효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바클레이의 선물 이해는 서로 다른 전통에 속하면서도 중요한 공명을 형성한다.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 앞에서 왜 책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면, 바클레이는 그러한 책임이 어떠한 공동체적 형태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타자의 우선성과 선물의 우선성은 모두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환대와 공동체라는 지평 위에서 서로를 비추게 된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이다. 타인의 얼굴과 비상응적 선물은 모두 교회를 자기 보존의 공간이 아니라 환대의 공간으로 부른다. 교회는 동일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 안정감을 얻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과제는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점검하며, 공동체 밖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자를,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교회

역시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며 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바로 이러한 환대의 실천 속에서 비상응적 선물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타자를 향한 책임은 공동체적 삶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인간이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부과된 윤리적 의무 때문이 아니다. 인간은 이미 타자의 부름과 먼저 주어진 선물 속에서 형성된 존재이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의 얼굴과 바클레이가 말한 비상응적 선물은 모두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로 부른다. 그리고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살아 있는 증언이 된다.

결국 타인의 얼굴과 비상응적 선물은 우리를 또 다른 질문 앞으로 이끈다. 왜 책임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살아낼 것인가? 왜 환대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환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바로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의 자리이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 이것은 환대가 기독교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이를 위해서 두 사상가의 글을 더 깊게 탐구하여, 사회윤리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기며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신학과 실천』 78(2022), 159-183.
- 김규섭, “바울과 ‘소여성’(所與性): 존 바클레이와 존 칼빈의 저작에 나타난 은혜의 개념,” 『개혁논총』 66(2023), 333-359.
- 김형태, “『바울과 선물』 서평: 바클레이는 어떻게 샌더스를 넘어섰는가?” 『신약연구』 18(2020), 251-268.
- 레스쿠레, 마리 안느, 변광배 · 김모세 옮김, 『레비나스 평전』 서울: 살림, 2006.
- 바클레이, 존 M.G. 송일 옮김,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박연규,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퍼스 기호학적 이해,” 『기호학 연구』 50(2017), 109-136.
- 박종균, “타인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선교와 신학』 67(2025), 77-109.
- 서대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혜: 존 M.G. 바클레이 ‘은혜의 극대화’와 고린도전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22).
-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77-201.
- 에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 2018.
- 이상철, “레비나스의 신 담론과 이타성의 윤리학,” 『신학사상』 207(2024), 167-195.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1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존 M.G. 바클레이의 은혜 이해를 교차시켜 기독교적 책임윤리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레비나스는 서구 철학의 전체성 개념을 비판하며, 타인의 얼굴이 나의 자유와 인식에 앞서 나를 책임의 자리로 부른다는 점에서 윤리의 우선성을 논증한다. 그에게 책임은 상호성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며, 얼굴의 현현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는 비대칭적 사건이다. 한편 바클레이는 바울의 은혜(χάρις) 개념을 고대 지중해 선물 문화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며, 하나님의 선물이 수혜자의 가치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비상응적 선물'임을 밝힌다. 이 비상응적 은혜는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혈통·신분·성별의 위계를 해체하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원리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우선성과 바클레이가 말하는 선물의 우선성이 모두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를 넘어서는 관계의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명함을 논증한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오늘날 관계의 파편화를 경험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자격이 아닌 은혜에 근거한 환대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기독교사회윤리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레비나스, 타자의 얼굴, 책임, 바클레이, 비상응적 선물(은혜), 환대,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사회윤리
